

## 경상북도 산불 재난 국가유산 수습 조사 고찰

### A Study on the Recovery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Heritage of forest fire Disaster in Gyeongsangbuk-do

○김 동 열\*      최 향 선\*\*      홍 은 기\*\*\*      한 동 완\*\*\*\*  
Kim, Dong-Yeol      Choi, Hyang-seon      Hong, Eun-Ki      Han, Dong-Wan

#### Abstract

In March 2025, a large-scale forest fire broke out in Gyeongsangbuk-do Province, damaging numerous cultural heritage sit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2025 Gyeongsangbuk-do forest fire Recovery Investigation effort with the 2008 Sungnyemun fire recovery investigation.

키워드 : 경상북도, 산불, 재난, 국가유산, 수습조사

Keywords : Gyeongsangbuk-do, Forest fire, National heritage, Recovery Investigation

#### 1. 서 론

2025년 3월 경상북도에 대규모 산불 발생하여 다수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보았다. 이에 후속 대응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 중심으로 수습 조사를 하였으며, 이는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수행된 대규모 수습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숭례문 화재와 2025년 경상북도 산불로 실시된 수습 조사 관련 조직 구성, 수습 과정 등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교하고, 2025년 수습 결과 살펴보고자 한다.

#### 2. 2008년 숭례문 화재 수습조사<sup>1)</sup>

##### 2.1 수습 조직 구성

화재 직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크게 상황반, 현장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상황반은 수습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부처 협의 등의 대외적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반은 현장처리반과 현장기록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 수습 정리를 담당하였다. 현장처리반은 문화재청 기술직 전문인력

을 주축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로 부재 수습 및 현장 정리 등의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현장기록반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통건축연구실을 중심으로 보존과학연구실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조사 및 보존처리 등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하며, 현황조사 및 기록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 2.2 수습 과정

수습 일정은 2월 초부터 3월까지 가설비계 설치 작업을 병행하면서 문루 내부까지 부재 수습이 완료되었고, 이후 가설덧집 설치, 야적된 수습 부재의 약조사, 수습 부재 처리 계획 수립 및 이를 토대로 부재보관고 설계 및 이동 계획 수립이 4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5월 31일까지 경북궁 내에 마련한 부재보관고로 수습 부재를 이동 완료함으로써 피해 현장 수습이 완료되었다.

일련의 피해 부재 수습은 부재보관소 이동까지 [표1]과 같이 7단계의 과정으로 처리되었다.

표1. 숭례문 화재 피해 부재 수습 과정

| 구분  |           | 내용                   |
|-----|-----------|----------------------|
| 1단계 | 부재 수습     | 피해부재의 현장 수습          |
| 2단계 | 부재 분류     | 부재의 특성에 따른 분류        |
| 3단계 | 응급보존 처리   | 이물질 제거, 탄화면 경화처리 등   |
| 4단계 | 보양처리      | 부재 보강, 포장 등          |
| 5단계 | 운송을 위한 적치 | 팔레트, 박스 등 제작하여 부재 정리 |
| 6단계 | 부재이동      | 문화재 운송 전문업체 차량 이동    |
| 7단계 | 부재보관소 적치  | 향후 조사 및 연구가 용이하도록 적치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서울시 중구청, 『숭례문 화재 피해현황 및 수습보고서』, 2008, p.72

#### 3. 2025년 경북지역 국가유산 수습조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

이 연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NRICH-2505-A75F-3

1)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서울시 중구청, 『숭례문 화재 피해현황 및 수습보고서』, 2008, pp.67-72 참고 인용

### 3.1 수습 대상 및 과정

2025년 3월 대형산불 재난에 의해 경북지역에서 인명, 재산 피해와 더불어 다수의 건조물 문화유산도 피해를 보았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건조물 문화유산 현황은 국가지정 5건(전소 3건, 부분피해 3건)과 시도지정 17건(전소 12건, 부분피해 4건, 열손상 1건)으로 지난 2008년 숭례문화재와 달리 면단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2. 산불 피해 건조물 문화유산 현황

| 구분 | 국가지정 |      | 시도지정 |          | 합계 |
|----|------|------|------|----------|----|
|    | 전소   | 부분피해 | 전소   | 부분피해/열손상 |    |
| 건수 | 3    | 2    | 12   | 4/1      | 22 |

이에 경상북도청은 국가유산청에 피해 국가유산 수습을 요청하였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을 중심으로 수습 조사가 실시되었다.

대상은 전소 피해를 본 청송 사남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의성 고운사와 연수전(보물) 3건으로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수습 조사가 수행되었다.

수습 조사 과정은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정리(교육 포함), 수습 부재 이관, 결과보고 순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표3. 국가유산 수습조사 과정

| 구분  |          | 내용                                                                                                                                |
|-----|----------|-----------------------------------------------------------------------------------------------------------------------------------|
| 1단계 | 사전조사     | · 수습 현황 및 범위 조사<br>· 수습 방향, 일정, 업무 협의<br>· 수습 부재 보관 장소, 이관 협의<br>· 현장 인력 섭외 및 교육                                                  |
|     |          | · 재질별 부재 수습(수습 위치 표기)<br>· 수습 부재 현장 실측 및 기록<br>· 수습 부재 보관소 이동 적치<br>·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정리 및 보양<br>· 시도지정 문화유산 수습을 위한 기관 및 지자체 현장교육 |
| 3단계 | 수습 부재 이관 | · 지자체 및 소유자에게 수습 부재 이관 및 결과 설명                                                                                                    |
| 4단계 | 결과보고     | · 수습조사 결과보고서 작성<br>· 수습 결과 알림(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지자체)                                                                                   |

1단계 사전조사는 당해 문화유산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어진 기간 내 조사 방향, 일정, 현장 인력 섭외 및 교육, 수습 부재 보관장소와 이관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2단계 현장조사 및 정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각 부재별로 수습 위치를 표기하여 이동하고, 이를 현장에서 바로 재질별로 나누어 실측과 기록을 병행한다. 그리고 조사 완료 후 협의된 장소에 부재를 이동 적치하고,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정리 및 보양을 실시한다. 더불어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국가지정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 건조물 문화유산도 다수 전소되어 이를 수행할 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습 방법과 과정에 대한 현장교육을 한다. 3단계 수습 부재 이관은 당해 문화유산 관리기관(자)인 지자체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설명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관한다. 4단계 결과보고는 향후 당해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습 부재 위치, 실측값, 사진자료, 조사 의견 등이 수록된 보고서를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지자체에 제공한다.

### 3.2 수습 조사

수습 조사는 국가지정 3건을 대상을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사남고택은 안채와 별채가 전소되었으며, 수습 조사는 2025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습 결과 안채와 별채는 기단과 방바닥까지 남아 있었으며, 부재는 목부재 13점, 철물 43점, 기와 14점, 기타(벽체, 굴뚝 옹기) 2점, 총 72점이 수습되었다.

보물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수습 조사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연수전은 수습결과 기단과 일부 초석만이 남아 있었으며, 부재는 목부재 2점, 철물 206점, 기와 75점, 총 283점이 수습되었다. 다음으로 가운루는 수습결과 일부 초석만이 남아 있었으며, 부재는 목부재 113점, 철물 151점, 기와 5점, 총 269점이 수습되었다.

표4. 국가유산 수습조사 전후 현황

| 유산명     | 피해 전                                                                                 | 조사 전                                                                                  | 조사 후                                                                                  | 수습 부재                                                                                 |
|---------|--------------------------------------------------------------------------------------|---------------------------------------------------------------------------------------|---------------------------------------------------------------------------------------|---------------------------------------------------------------------------------------|
| 사남고택    |   |   |   |   |
| 고운사 연수전 |  |  |  |  |
| 고운사 가운루 |  |  |  |  |

## 4. 결론

오랜 시간을 이어온 우리 국가유산은 화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어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수습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응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번 피해는 넓은 면적에 발생하여 숭례문 화재의 점단위 후속대응이 아닌 면단위로 수행된 사례로 대규모 재난 대응에 있어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이번 후속대응을 분석하여 부족한 예산, 전문인력, 매뉴얼 등 보다 진보된 재난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서울시 중구청, 『숭례문 화재 피해현황 및 수습보고서』, 2008